

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4.29.(화) 경향신문, “무상급식의 진짜 비밀” 오피니언 관련

- (전략)...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조리흙이 지목됐다. 노동자들은 급식실 환기 시설을 개선하고,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암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조리흙을 포함하라고 주장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.

2. 설명 내용

□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면서 노력 중임

① 정부는 ‘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’을 마련하여,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('23년~'27년)을 추진 중으로

－ 환기설비 개선 사업이 완료된 학교에 대해 환기장치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 지도를 할 예정임

② 교육청별로 급식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(저선량 흉부CT 등)을 지원 중임

③ 급식종사자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, 유해요인 조사, 컨설팅, 예방키트(보호테이프, 관절보호대 등) 지급도 추진 중임

□ 이와 함께 급식종사자가 이·퇴직한 후에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검토하겠습니다

□ 다만, ‘조리흙’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관리하는 것은 국내외 선례를 찾기 어렵고, 측정방법, 노출기준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가 필요함
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	책임자	과 장	박종일 (044-202-8870)
		담당자	사무관	진영훈 (044-202-8872)